

배 재배농가 경영 표준진단 분석

이철휘*, 장현동*, 박종미*, 강경진*, 함수상*, 김학현*, 서민원*, 김나현*, 장예람*

*충청남도농업기술원,

e-mail:Lch5127@korea.kr

The Study on the Analysis for Pear Farmer's Management Diagnosis in Chungnam Provincial.

Cheol-Hwi Lee*, Hyun-Dong Jang*, Jong-Mi Park*, Kyeong-Jin Kang*, Su-Sang Ham*, Hak-Hun Kim*

Min-Won Seo*, Na-Hyeon-Kim*, Ye-Ram Jang*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요 약

본 연구는 충남지역 배 재배농가의 경영진단 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 방향 설정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2022년도 기준 충남 배 재배면적은 2,108ha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 지역 배 주산지는 천안, 아산, 예산, 논산 4개 지역이다. 이 지역 중심으로 배를 재배하고 있는 71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2021년도에 갱신한 배 표준 경영진단표를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을 보면 일반현황, 경영성과지표 세부진단항목(과원구조, 과수관리, 과원관리, 경영관리)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반현황에서 평균 나이는 60.9세이고 재배경력은 24.1년이다. 그리고 재배면적은 평균 4911.3m²이다. 배 소득(원/10a) 현황을 보면 5백만원 이상이 52.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4백만원 미만도 32.9%를 차지하고 있었다. 두 번째 경영성과 지표에서 10a당 수량이 평균 점수 42.8점이 나와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품율은 73.8점으로 높아 품질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의 경우는 48.2점으로 점수가 낮아 향후 컨설팅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올려야 한다. 경영규모는 60점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보통으로 향후 경영규모도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 세부진단항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점수를 보면 과수관리 78점, 과원관리 70점, 과원구조 63점, 경영관리 62점 순이었다. 과수관리와 과원관리는 70점 이상으로 양호하나 과원구조와 경영관리는 70점 이하로 향후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산지 지역별로 보면 천안지역이 분야별 점수가 높아 기술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세부진단항목 분야별 점수를 보면 과수관리 98점, 과원관리 88점, 과원구조 79점, 경영관리 71점이다. 반면에 점수가 낮은 지역은 예산지역이다. 세부진단항목 분야별 점수를 보면 과수관리 72점, 과원관리 71점, 과원구조 60점, 경영관리 60점이었다. 소득과 경영성과지표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계수 추정값을 보면 수량 0.12, 경영규모 0.11, 상품품율 0.10, 당도 0.01 순이었다. 하지만 P값이 0.27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도를 제외한 3가지 항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득과 세부진단항목간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영관리 0.42, 과수관리 0.41로 가장 높았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경영관리와 과수관리임을 추정할 수 있다. 경영진단점수 상위수준 농가와 하위수준농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상위 10농가 하위 10농가를 추출하였다. 주요 항목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재배면적은 5,151평의 차이가 있었고 재배경력은 약 2년차이로 상위농가가 적었다.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지만 관행농업 보다는 신기술을 도입한 신흥 농업인의 경영진단 점수가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연령의 경우는 상위농가가 19세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진단 점수가 소득과 직결된다고 추론하면 재배경력 보다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능력이 배 재배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상위농가 하위농가에 대하여 경영성과지표 항목간 비교를 한 결과 당도는 4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경영규모 54점, 수량 46점, 상품품율 46점 순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상하위농가 세부진단항목 요소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원구조를 보면 토양개량 등 4요소인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덕(지주) 시설로 18점을 나타내었다. 과원구조의 기술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덕시설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기술수준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토양개량도 12점으로 차이가 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진단점수 상위농가 하위농가의 과수관리 분야 요소별 차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과수관리 요소는 정지전정, 가지유인, 수관확보율, 신초생장 정지율, 적화 적과 적심, 평균 봉지매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차이값을 갖는 것은 정지전정과 수관확보율이다. 정지전정의 경우 18점, 수관확보율은 16점이다. 하위농가가 과수관리 기술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지전정과 수관확보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진단점수 상위농가 과원관리 차이값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과원관리는 시비, 잡초관리, 병해충 방제방법, 관수방법, 기계화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점수 차를 보이는 것은 병해충 방제방법이다. 병해충방제방법은 24점, 시비와 관수방법도 14점을 기록하였다. 마찬가지로 과원관리 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해충방제방법, 관수방법, 기계화정도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영관리는 경영기록 및 분석 등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경영계획 점수 차이가 14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영관리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경영계획, 위험관리, 안정성 및 품질인증의 기술수준을 높여 주어야 한다.

Keyword : checklist, pear, consulting

T. 041-635-6091, F. 041-635-7922 Lch5127@korea.kr

☞ 본 연구는 2023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기관고유과제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